

데스크 시각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최재호 경제부장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본사를 나주로 이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를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초광역 혁신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계적 에너지특화도시로

이를 통해 4261억 원의 투자 유치, 303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내년까지 100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지역 핵심인재 1000명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전은 지난 1년간 빛가람혁신도시를 산학연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다. 그 결과 현재까지 대기업 5개 사, 중견·중소기업 68개 사, 외국계 기업 3개 사, 연구소 기업 1개 사 등 77개사를 유치했다.

지자체 협력만이 성공 담보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온 배경을 보면 전국에 조성 중인 혁신도시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가장 저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은편칼럼

식민사관과 고대사 죽이기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행정학박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이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자기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적일 수 수밖에 없다'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조했다.

양이라는 사실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한사군은 대동강 유역이 아니라 하북성 동남쪽 요새에 있었던 사실도 포함돼 있다.

임유관에서 싸워 대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2차 전쟁(서기 612년)에선 을지문덕 장군이 수양제의 113만 대군을 살수에서 대파했다고 기록돼 있다.

기고

광주, 과학문화로 미래를 선점하자



강신영 국립광주과학관장

지난 2006년 11월, 13억 중국 사회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대국굴기(大國崛起)'라는 중국 관영 중앙TV(CCTV)가 제작 방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때문이다.

해고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광주는 어떠한가? 어떠한 글로벌한 가치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또 세계를 지배했고, 18세기 말에는 '작은 구멍가게'라는 별명의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해가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학연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들에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놓으며 미래세대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다.

本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피니언

社說

아무리 거물급 인사라도 광주 가면 죽는다?

허성관(68)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임명된 지 한 달도 못 돼 지난해 11월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전윤철(76) 광주비엔날레 이사장도 엊그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취임한 지 1년도 못 돼 물러났다.

않나 싶다. 사심 없이 고향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했으나 느슨한 조직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발목이 잡힌 것 같기도 하다.

현 정부에서는 탕평인사 꿈도 꾸지 마라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인사 편중과 호남 차별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 집권 2년 반을 넘어선 현재, 경상도 출신의 독식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 호남 출신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양상이다.

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발탁됐다. 결국 이번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無等鼓

1분 47초짜리 광고 영상 한 편이 지구를 울리고 있다. 독일 대형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EDEKA)가 유튜브에 올린 독거노인 광고다.

한 눈물을 흘린다. 슬픔에 잠겨 집안에 들어선 이들을 기다리는 풍경은 뜻밖에도 환하게 밝혀진 촛불과 손바닥이 준 비를 끝낸 식탁, 잠시 후 식탁 위에서 할아버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Table with subscription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pricing details for print and digital versions.